

벤처투자, Winter is coming?

< Executive Summar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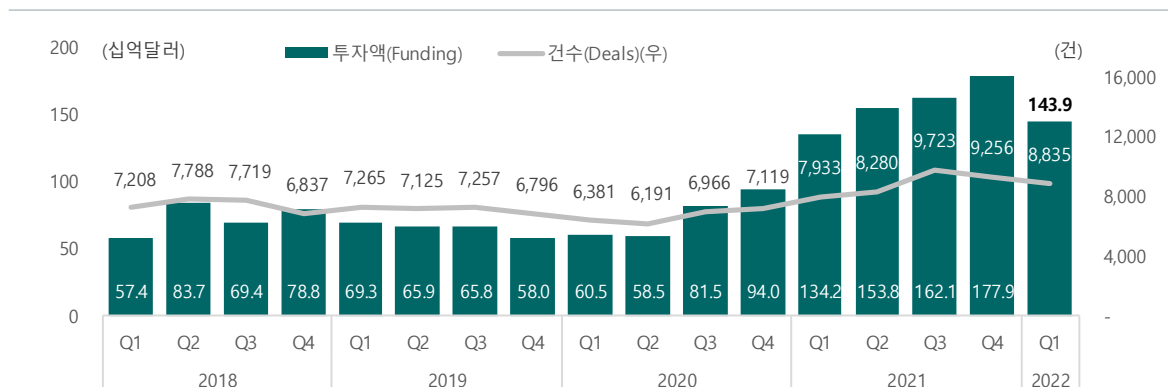
■ 최근 국내외 벤처투자 시장을 둘러싼 성장 둔화 우려가 확산

- 2022년 1분기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은 전분기 대비 19.1% 감소(1,439억달러) 했으며, 이는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냄
 - 국내 벤처투자의 경우, '22년 1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전분기 대비 14.0% 감소한 2.1조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벤처투자 흐름과 유사
- 국내외 벤처투자의 위축은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 경제침체 우려에 기인
 - 최근 미 연준의 자이언트스텝과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등으로 위험자산 시장으로 간주되는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 등이 크게 하락하며 위축되는 상황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양질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투자 환경이 급변하며 시장 위축이 심화될 전망

- 초기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을 기록하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CVC 설립 확산과 같이 민간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며 양질적 성장 기반이 확대
- 하지만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뿐만 아니라 국내 벤처투자 시장도 어려운 투자 환경에 직면하며 투자 심리 악화, VC 수익성 둔화로 시장 위축이 심화될 전망
 -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와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은 주식시장, IPO 시장, 가상자산 시장 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벤처투자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특히,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LP) 감소로 펀드 조성에 난항이 예상되며, 조달비용 증가와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VC 수익성 악화를 초래

그림 | 글로벌 VC투자 금액 및 건수 현황



자료 : CB Insight

- 그동안 글로벌 금융회사는 자체 VC 또는 제휴 VC를 통해 은행 주요 관심 분야에서 우수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확대
 - Barclays, BBVA는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WM 부문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Santander, ING Bank는 비대면 채널의 이용 증가 영향으로 대출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제휴 및 투자를 강화
 - 손님 편의성(디지털은행, 결제, 보안 등)과 기술 관련 핀테크 기업 투자도 활발
 - 국내 금융회사는 비은행 계열의 포트폴리오 강화 및 수익 다변화를 목적으로 VC 관련 계열사의 신설 및 인수를 추진하며 벤처투자 역량을 강화
- 향후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는 정부 외에도 민간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며, 금융회사도 디지털화 및 신성장 동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기여할 필요
 - 정부, 대형 VC 및 대기업 계열 CVC를 중심으로 벤처투자 시장 침체를 방어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노력이 요구
 - 정부는 대통령의 벤처기업 육성 공약 등으로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 지속, CVC의 빠른 안착을 통한 대규모 민간자금 투자 활성화 및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도 지원
 - 금융회사도 민간차원의 벤처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노력과 함께 그룹 디지털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목적의 전략적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
 -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술 내재화 및 빅테크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요구

연구위원 송재만 jmsong@hanafn.com

Key Words : 벤처투자, VC, 핀테크

I. 국내외 벤처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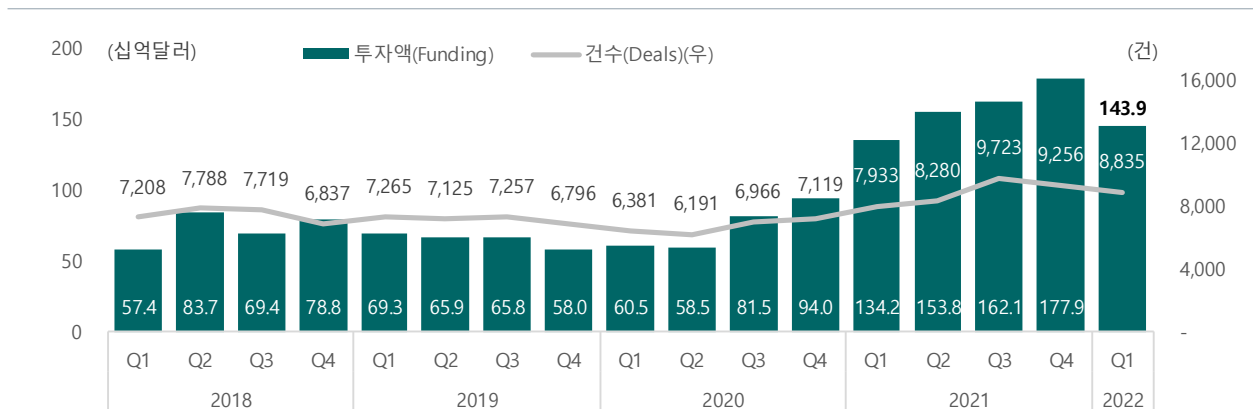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가 확산

- 2022년 1분기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은 전분기 대비 19.1% 감소한 1,439억 달러이며,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CB Insight)
 -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억달러) : 1,621('21.3Q) → 1,779('21.4Q) → 1,439('22.1Q)
- 벤처 투자 건수도 2021년 3분기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과 향후 벤처투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
 - 글로벌 벤처투자 건수(건) : 9,723('21.3Q) → 9,256('21.4Q) → 8,835('22.1Q)
 - 과거 투자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별 투자 금액 증가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했으나 '22년 1분기에는 투자 규모와 건수 모두 감소하며 시장 둔화 가능성 제기

■ 글로벌 벤처투자의 위축은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

-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야기하며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인
- 미 연준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도 강력한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미 연준은 6월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 1.00%에서 1.75%로 상승
- 최근 자이언트스텝과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등으로 위험자산 시장으로 간주되는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 등이 크게 하락하며 위축되는 상황

그림1 | 글로벌 VC투자 금액 및 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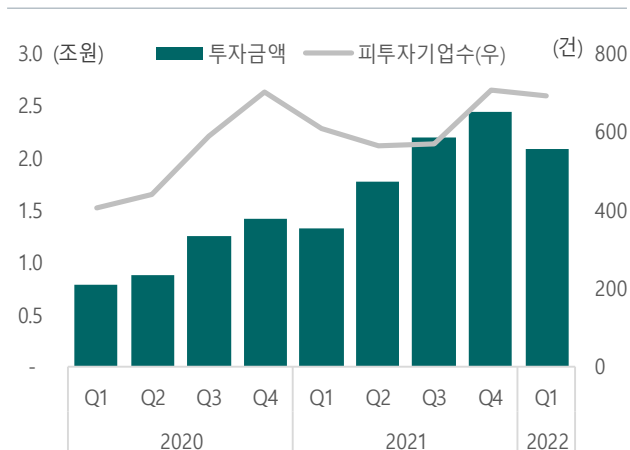
자료 : CB Insight

■ 국내 벤처투자도 글로벌 벤처투자 동향과 유사한 양상

- 2022년 1분기 현재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전분기 대비 14.0% 감소한 2.1조원을 기록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약 57.9%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을 시현
 - 글로벌 벤처투자의 경우, 국내 벤처투자과 마찬가지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성장했으나 국내 벤처투자 증가율보다는 낮은 11.4% 수준
-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가 신규투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유통/서비스와 바이오/의료 부문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게 조사
 - ICT 서비스 부문은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18년 21.8% → '22.3월 33.8%)되고 있으며, 투자 금액도 전년동기 대비 3,394억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 업종별 투자 증가액(전년동기 대비, 억원) : ICT 서비스(3,394), 유통/서비스(1,706), ICT 제조(500), 영상/공연/음반(424), 바이오/의료(403), 전기/기계/장비(403)) 순
- 국내 벤처투자 주체는 창업투자회사로 2022년 1분기 현재 210개가 운영 중이며,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LCC, 43개), 신기술사업금융업자(36개) 등이 포함
-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도 VC(Venture Capital)를 설립·인수하고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재무적 투자(FI)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SI)를 추진하며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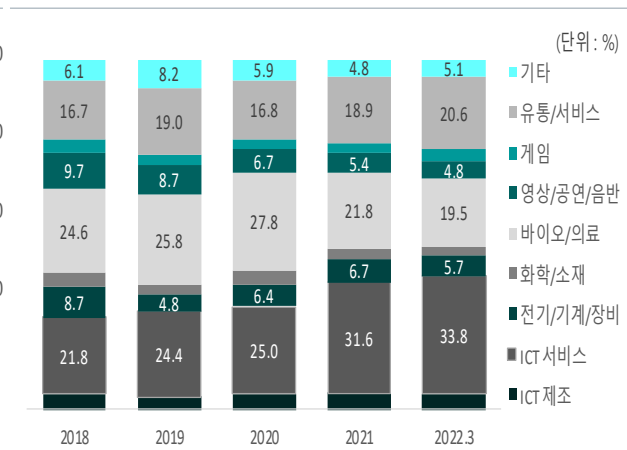
■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투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글로벌 금융회사의 벤처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그림2 | 국내 벤처투자(신규) 규모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림3 | 업종별 국내 벤처투자(신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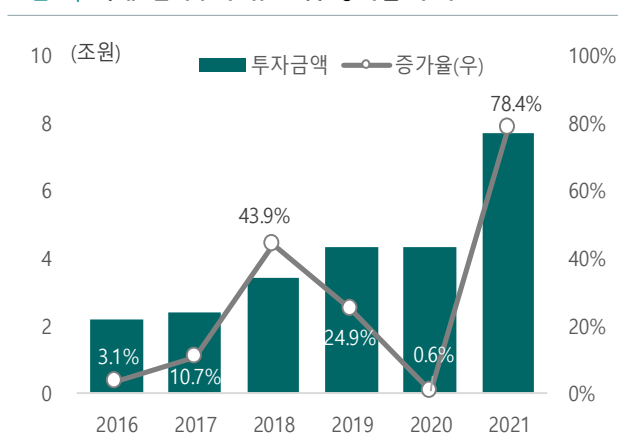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II. 최근 국내 벤처투자를 둘러싼 환경 변화 및 전망

1. 환경 변화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 벤처투자 규모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
 - 2017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정체되며 2020년에는 0.6%의 성장에 그침
 - 국내 벤처투자 증가율(신규투자, %) : 3.1('16) → 10.7('17) → 43.9('18) → 24.9('19)
 - 하지만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2021년 다시 전년대비 78.4%라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외부 우려를 불식
- CVC 설립 확산 등 민간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며 생태계 기반이 개선
 - 200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벤처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지며 성장이 정체됐으나 정부 중심의 생태계 육성 노력으로 양적 성장을 실현
 - 정부는 매년 성장사다리펀드(KDB산업은행 등이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 모태펀드(정부 부처에서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 등을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
 - 다만, 초기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 요소이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없이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 어려움

그림4 | 국내 벤처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표1 | 국내 주요 기업 CVC 현황

기업집단	CVC 기업	CVC 유형
롯데	롯데액셀러레이터	신기사
코오롱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창투자
CJ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창투자
동원	동원기술투자	신기사
미래에셋	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벤처투자	신기사/창투자
삼성	삼성벤처투자	신기사
KT	KT인베스트먼트	신기사
호반건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신기사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신기사

주 : GS그룹은 '22.5월 'GS벤처스' 설립(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언론보도 종합

- 최근 대기업들이 CVC¹⁾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 기술 혁신 및 신성장 동력 발굴에 활용하며 민간차원에서의 벤처 생태계 기반도 점차 강화되는 모습
 - 기업들이 운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제도 유형에는 크게 사내벤처, 혁신랩, CVC, Start-up 육성 지원으로 구분되며, CVC 설립을 통한 진출이 확대될 전망
 - 특히,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일반 대기업 지주사의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대기업 중심의 CVC 설립 증가가 예상

2. 전망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경기침체 우려로 어려운 투자 환경에 직면

-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글로벌 유동성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
-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는 주식시장, IPO 시장, 가상자산 시장 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벤처투자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VC 수익성 둔화로 시장 위축이 심화될 전망

- (투자심리 악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LP) 감소로 펀드 구성에 난항이 예상
 - 투자자는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나 금리인상 기조와 경기 침체로 수익률이 낮아져 수익률-금리 간 격차가 줄어 투자 심리가 악화될 전망
- (VC 수익성 둔화) 최근 VC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조달비용 증가와 투자수익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VC 수익성 악화를 초래
 - 금리인상과 시장 위축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될 시, 조달비용 증가와 투자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며, VC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보수적 운용이 예상
- 특히, 중소형 VC일수록 자금 모집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공급 부족은 자금 수요자인 스타트업에 영향을 끼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대형 VC와 펀드 구성이 끝난 일부 VC들은 향후 벤처기업 투자에 있어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하나 중소형 VC의 경우에는 펀드 모집·구성 단계부터 어려움이 예상

1)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출자한 VC를 뜻하며, 재무적 수익 외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술 및 인재 확보, 신사업 진출 등 전략적 목적도 함께 추구

III. 국내외 금융회사의 벤처투자 동향

1. 글로벌 금융회사

- 글로벌 금융회사의 벤처투자는 주로 자체 VC 또는 제휴 VC를 통해 투자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분야별 투자 비중은 은행간 차이가 존재
- (Barclays) 초기(seed) 단계 및 WM 관련 핀테크 기업 투자 집중
 - Barclays는 지난 3년간('18~'20) 84개 핀테크 기업(피투자기업 본사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 투자를 진행했으며, 초기(seed)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75%로 압도적
 - Barclays의 벤처투자는 'Barclays Ventures'를 통해 이루어지며, 'Barclays Accelerator'와도 연계를 통해 투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²⁾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기업 수는 '19년 45개에서 '20년 23개로 감소
 - 내부 WealthTech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영향으로 WM 관련 스타트업 투자가 가장 많으며(21건), RegTech, Lending 관련 기업 투자도 각각 11건
 - 대표 투자기업은 Gatsby, Youtility, HUBX, Spark Change 등
- (Santander) 내부 VC 역량 강화를 통한 후기 라운드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 Santander는 지난 3년간('18~'20) 후속 라운드 투자까지 포함해 총 32건의 핀테크 투자를 진행했으며, 투자한 핀테크 기업 수는 26개
 - Santander의 벤처투자는 Mouro Capital을 통해 직접투자 형태로 진행되며, 초기(seed) 단계보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후기 라운드 핀테크 기업에 투자
 - Santander는 '14년 'Santander Innoventures(SIV)'를 설립하고 최초 1억달러 규모의 핀테크 벤처펀드를 운영하였으며, '16년 2억 달러까지 펀드 규모를 확대
 - SIV는 '20년 9월 Santander에서 분사하여 'Mouro Capital'로 사명 변경 후 운영 규모를 4억 달러까지 확대, 현재 유럽과 미국 스타트업 36개 기업에 투자 중
 - 초기(seed) 단계 기업 투자 비중은 9%인 반면, Series C 이상 기업 비중은 53%

2) Barclays는 사내 VC인 'Barclays Ventures'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혁신랩('Barclays Accelerator', 'Eagle Labs', 'rise', 'Female Innovation Lab', 'Black Founder Accelerator')을 운영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확대

- 투자 분야는 Lending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12건) 중이며, 대표적 기업은 Tradeshift, Creditas, Fnlity International 등
- **(BBVA) 외부 VC와 제휴를 통해 BBVA 비전과 일치하고 우수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 BBVA는 지난 3년간('18~'20) 20개의 핀테크 기업에 투자했으며, WM과 Digital Banks 분야의 초기 및 성장 단계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
 - 투자 기업 중 WealthTech 관련 핀테크 기업이 9개, Digital Banks/Neobanks 부문은 5개. 특히, 초기(seed)~Series B 이하 기업 비중이 67%로 높은 편
 - 대표적 기업은 Neon, Atom Bank, Hippo Insurance, Guideline, Solarisbank 등
 - BBVA는 2013년부터 사내 VC인 'BBVA Ventures'(1억달러)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시작했으나 사내 VC 성장 한계로 청산하고 투자자(LP) 역할 집중
 - 은행지주회사법상 기업지분 5% 초과 금지에 따른 seed, early stage 투자 제한 등으로 사내 VC를 통한 벤처투자에 한계 직면하며 '16년 'BBVA Ventures'를 청산
 - 사내 VC 청산 이후 BBVA는 외부 VC('Propel Venture Partners')와 제휴해 2.5억 달러 규모 LP 참여. 최근 1.5억 달러를 추가해 총 4억 달러로 투자 규모를 확대
- **(ING Bank) 대규모 핀테크 펀드를 조성하고 타 은행과는 달리 AI와 머신러닝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특징을 보유**
 - ING Bank는 2017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3억 유로)의 핀테크 투자 펀드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15개의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진행
 - ING Bank의 핀테크 투자는 은행과 내부 VC인 'ING Ventures'가 주도
 - 주요 투자 분야는 Lending(5개), AI/머신러닝(4개), 블록체인(2개) 관련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Series B 이하의 성장 단계 핀테크 기업이 대상
 - 대표적 기업은 Clark, Transfermate, Fintonic, Fnlity International 등이며, 투자 기업 중 Series A~Series B 이하 성장단계 기업 비중이 61%를 차지

[참고] 글로벌 금융회사별 핀테크 투자 동향(2018~2020)

구분	 BARCLAYS	 Santander	 BBVA	 ING
핀테크 투자 기업수 (투자 건수)*	84 (100)	26 (32)	20 (28)	15 (18)
핀테크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 비중	- Seed 75% - Series A 6% - Series B 6% - Series C 3% - Series D 1% - Series E 1% - Others 7%	- Seed 9% - Series A 19% - Series B 19% - Series C 19% - Series D 6% - Series E 3% - Others 25%	- Seed 17% - Series A 25% - Series B 25% - Series C 14% - Series D 4% - Series E 4% - Others 11%	- Series A 33% - Series B 28% - Series C 11% - Others 28%
핀테크 Segment별 투자 건수	- WealthTech 21 - Others 18 - RegTech/Lending 11 - InsurTech/ - AI-Machine Learning 8 - BankingTech/Neo banks-Digital Banks/B2B FinTech 6	- Lending 12 - Neobanks-Digital Banks 3 - WealthTech/RegTech/InsurTech/Digital Card /Blockchain 2 - AI-Machine Learning/Others/Cryptocurrency/Capital Market Tech/BankingTech /B2B FinTech 1	- WealthTech 9 - Neobanks-Digital Banks 5 - Lending/InsurTech /BankingTech 3 - Others 2 - Payment/Loyalty-Rewards-Coupons/ Big Data Analytics 1	- Lending 5 - AI-Machine Learning 4 - Blockchain 2 - WealthTech/RegTech/InsurTech/Trade Finance/Capital Market Tech/B2B Fin Tech 1
지역별 핀테크 투자 기업 건수	- US 45 - UK 31 - Israel 11 - Ireland 3 - Estonia/India/Belgium 2 - Poland/Finland/Canada/Mali 1	- US 14 - UK 10 - Germany 3 - Mexico 2 - Brazil 2 - Canada 1	- US 12 - UK 7 - Brazil 3 - Germany/India 2 - Spain/Mexico 1	- UK 4 - US 3 - Germany 3 - Ireland/Czech Republic 2 - Italy/Spain/Switzerland/Netherlands 1
핀테크 투자 실행 조직	은행 + Barclays Ventures	은행 + Mouro Capital	은행 + Propel Venture Partners	은행 + ING Ventures
대표 투자 핀테크 기업	   	  	  	  

주 : 투자 건수는 동일 기업 후속 라운드 투자의 영향으로 투자 기업수보다 많음
 자료 : Prov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2. 국내 금융회사

- 국내 금융회사는 비은행 계열의 포트폴리오 강화 및 수익 다변화를 목적으로 VC 관련 계열사의 신설 및 인수를 추진
 - KB금융그룹은 오랜 업력('90년 설립)을 보유한 K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벤처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약 950개 스타트업에 투자
 -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네오플렉스를 인수('21년 '신한벤처투자'로 사명 변경)했으며, 캐피탈을 중심으로 그룹 디지털 분야 전략 펀드를 구성
 -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 하나벤처스를 설립하고 재무적 투자 및 그룹 내 벤처투자 관련 전략적 투자를 선도하는 Control Tower로서 역할 수행
- 국내 금융그룹 계열 VC는 그룹 계열사를 투자자로 참여시켜 그룹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 동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SI) 펀드를 조성 중
 - KB금융그룹은 'No.1 금융플랫폼' Vision 아래 KB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한 그룹 전략적 펀드인 'KB 디지털 플랫폼 펀드'를 2021년 설립
 - 'KB 디지털 플랫폼 펀드'는 KB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이 공동 운영(Co-GP)을 맡고 KB 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카드 등 계열사가 LP로 참여
 -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 등 혁신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과 혁신적 사업모델과 MZ세대 고객층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
 - 신한금융그룹은 약 6,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분야 전략 펀드를 결성하고 커머스, 프롭테크,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관련 기업에 투자해 그룹 디지털 사업에 활용
 - 2021년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이 출자(3,000억원)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제1호' 결성, 2022년 2호(3,000억원) 펀드 결성
 -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벤처스 설립 이후 그룹 내 계열사가 하나벤처스 조성 펀드에 LP로 적극 참여, 2022년 그룹 전략적 펀드인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를 조성
 -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는 3,000억원 규모로 하나벤처스와 하나금융투자가 공동운용 (Co-GP)을 맡고, 그룹 내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등이 LP로 참여
 - 메타버스, 인공지능, 프롭테크, 모빌리티, 인슈어테크, 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분야 기업에 투자해 그룹과의 시너지 창출을 모색

IV. 시사점

- 향후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는 정부 외에도 민간차원의 노력이 요구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거시 경제적 충격이 지속될 경우, 벤처투자 시장의 침체, VC 및 스타트업 대한 구조조정('옥석가리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벤처 생태계는 그동안 양질적으로 성장한 만큼 정부 외에도 CVC와 대형 VC가 주도하여 벤처투자 시장 침체를 방어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정부는 대통령의 벤처기업 육성 공약 등으로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 지속, CVC의 빠른 안착을 통한 대규모 민간자금 투자 활성화 및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도 지원 예상
- 금융회사도 민간차원의 벤처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그룹 디지털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목적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필요
 - 금융회사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술 내재화 및 빅테크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채널 이용 확대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계기로 작용
 - 또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Barclays, BBVA와 같이 WM 부문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손님 편의성(대출, 결제, 보안 등) 개선과 관련된 분야의 핀테크 투자도 고려
 -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을 통한 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Santander, ING와 같이 대출 관련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및 투자 확대가 요구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2020.7),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2.3), “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투자 등록 완료”, 보도자료
 자본시장연구원(2021.12), “국내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현황과 규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1.12), “글로벌 금융회사의 혁신랩(Innovation Lab) 운영”
 한국무역협회(2021.1), “코로나19 시대의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동향 및 시사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각호
 CB Insight(2022.4), “State of Venture Q1'22 Report”
 DBR(2022.6), “스타트업,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KPMG(2022.1), “Pulse of Fintech H2'21”
 Prove(2021.9), “Top 5 European Banks in FinTech Investments Over the Past Three Years”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